

농협, 유류비 부담 완화에 300억 긴급 투입

한달 간 농업인 면세유 할인...유종별 차등 13일~내달 10일 주유소 l당 200원 캐시백

농협중앙회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농업인과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영농비 상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지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면세유 할인 250억원과 농협주유소 할인 50억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농가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정

부 역시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즉각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면세유 할인 지원에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지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물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할인 대상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수준이며, 경유·등유·휘발유 등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유종을 중심으로 차등 배정된다. 이 재원은 농협 중앙회 예산으로 마련된다.

농협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NH pay 사전 응모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300억원 지원이 시행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한층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 지원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3월 이달의 전통주 '이제:배로 만든다' 선정

전남도가 나주 배로 빚은 과실 발효주 '이제:배로 만든다'를 3월 이달의 전통주로 선정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다.

전남도는 나주 페어리플레이가 생산한 과실주 '이제:배로 만든다'를 3월 이달의 전통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페어리플레이는 나주 배를 활용한 과실 발효주 '페리(Perry)'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페리 전문 양조장이다. '페어리플레이'라는 이름은 배(PEAR)와 다시 즐긴다는 의미의 리플레이(REPLAY)를 결합해 만든 것이다.

'이제:배로 만든다'는 프랑스 전통 배 발효주인 페리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나주에서 생산한 배를 활용해 만든 알코올 도수 5%의 과실 발효주로, 우리 배 품종인 황금과 추황 등을 활용한 순수 배즙을 발효해 제조한다.

배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은한 로제빛 색감과 산뜻한 배 향이 특징이다. 청량감과 부드러운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가볍고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낮은 도수와 과일 향 덕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여성 고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제품의 주요원인 배는 국내 대표 배 산지인 나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주 산업과 연계한 특산물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제:배로 만든다'는 차가워 즐기면 배 특유의 향과 상쾌한 기포, 은은한 단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식전주로 가볍게 즐기기에 좋고 해산물 요리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과도 잘 어울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전략연구 착수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제조 공정 데이터 기반 표준화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제조 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구축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연구소에서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전략연구사업' Kick Off 회의를 열고 김치 제조 공정의 표준화와 글로벌 생산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략연구사업은 김치 제조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화해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표준형 김치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김치 제조 기술과 생산 공정의 국제 표준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김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배추 전처리와 세척, 탈수, 양념 혼합, 발효 등 김치 제조의 핵심 공정을 정밀 분석해 공정별 모듈형 설비와 표준 공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K-김치팩토리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 생산 규모와 지역 환경에 맞는 김치 생산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김치 제조 설비와 운영 기술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글로벌 김치 생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국형 제조 기술이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치 제조 공정을 단순 식품 가공 기술을 넘어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조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김치 제조 설비와 생산 시스템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를 비롯해 김치 가공 설비 분야 기업인 텔스타, 명성, 이그린테크, 정광 등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배추 전처리와 세척, 탈수, 양념 혼합, 발효 등 김치 제조의 핵심 공정을 정밀 분석해 공정별 모듈형 설비와 표준 공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K-김치팩토리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 생산 규모와 지역 환경에 맞는 김치 생산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때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제조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남대학교

를 비롯해 김치 가공 설비 분야 기업인 텔스타, 명성, 이그린테크, 정광 등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배추 전처리와 세척, 탈수, 양념 혼합, 발효 등 김치 제조의 핵심 공정을 정밀 분석해 공정별 모듈형 설비와 표준 공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K-김치팩토리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 생산 규모와 지역 환경에 맞는 김치 생산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김치 제조 설비와 운영 기술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글로벌 김치 생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국형 제조 기술이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치 제조 공정을 단순 식품 가공 기술을 넘어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조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김치 제조 설비와 생산 시스템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시즌2' 출범 세계김치연구소, 16개국 33명 선발·내달 위촉식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 식문화 속에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시즌2'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시즌2' 최종 선발 결과를 확정하고 총 33명의 앰배서더를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국내외에서 총 145명이 지원해 약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전문가 심사팀 거쳐 국내 11명, 국외 22명 등 총 33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앰배서더는 커뮤니티 리더 13명, 에듀케이터 8명, 네트워크 7명, 리서처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치의 과학적 효능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 콘텐츠 제작,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국외 앰배서더는 유럽과 북·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16개국에서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유럽(네덜란드·독일·스페인·영국·이탈리아) 8명, 북·남미

(미국·아르헨티나·페루·콜롬비아) 7명, 아시아(일본·중국·튀르키예·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6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 등이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8명과 국내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영국·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등이 포함돼 총 11명이 선발됐다.

이번 앰배서더에는 대학 교수와 발효 연구자, 스타 셰프, 영양학자, 저널리스트,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한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지 대학 강의와 학술 연구, 김치 워크숍 및 강연, SNS 콘텐츠 제작,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국 식문화 환경에 맞는 김치 확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앰배서더는 다음달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8년 3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해 교육·연구·콘텐츠 제작, 국제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글로벌 확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평균 휘발유값 1900원대 '코앞'

단속 강화에 상승폭은 둔화...정부 '최고가격제' 결정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에 육박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2원으로 전날(1895원)보다 7원 올랐다.

이날 광주지역은 l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88원으로 전남(1870원)보다 18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전국 평균 1926원으로 2.3원 상승했고, 광주지역은 1888원으로 6원 오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주유소 가격 인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감소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물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이른바 '오일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유가에 정부는 최고 가격제 시행을 결정했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의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는 석유산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그 이

상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다.

김 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이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제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3월 14일은 백설기데이! 이트데이?우린 백설기로 합하게 간다!

"3월 14일은 백설기데이" 농협 광주본부 '백설기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9일 호남대학교에서 대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백설기데이 기념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백설기데이를 맞아 시장을 주고받는 상업적인 기념일 문화를 대신해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누며 쌀 소비를 늘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농기원, 청년농 창업기업 3곳 '스케일업' 지원

산들넛·아따달다·황금발영농조합법인 선정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청년농업인의 창업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도약과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 3곳을 선정하고 기업당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하고 시장 진입에 성공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브랜드 고도화와 생산 규모 확대,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기업은 산들넛(대표 김이랑) △아따달다(대표 윤지현) △황금발영농조합법인(대표 이현도) 등 3곳이다.

선정 기업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도 제공된다. 재무제표와 경영역량 분석, 사업계획 피보팅, 투자 유치에 위한 IR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전략 수립을 돕는다.

또 시장 조사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판

로 확대와 시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업타운은 농산업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도약을 돕고 있다.

김영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청년 창업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선도하는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시장 안착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AI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 포스코광양제철, 역량 강화

포스코광양제철소가 AI시대를 맞아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철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원들이 현업분야의 작업을 AI기반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오는 7월 우수자를 발표하는 등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부터 착수한 AI 기반 에이전트 시스템 과제는 생성형 AI와 연동해 업무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AI에이전트(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AI 비서) 구현과 포스코인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가치를 표현하는 4컷 만화 제작 등 2가지 중목으로 진행됐다.

AI에이전트 만들기 최대 5명까지 팀을 이뤄 챗봇, 문서작성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기대효과, AI에이전트 구축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다.

또 개인이 참가하는 AI관련 만화제작은 안전수칙 준수, 보안 마인드 확립 등 포스코인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AI를 활용해 4컷 만화로 표현토록 했다.

제철소 관계자는 "참가 직원들이 실제 현장 상황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AI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